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2018년 7월 9일 월요일 (음 5월 26일)

제20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도, 고용산업위기대책 추경편성 도의회 제출

본예산 대비 2,629억원 증액 6조6,708억원 규모

고용산업위기지역·지역주도 청년일자리지원 중점

전북도는 본예산 대비 2,629억원 (4.1%)이 증가한 6조6,708억원 규모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53억원 (5.0%)이 증가한 5조3,854억원, 특별회계는 76억원(1.5%)이 증가한 4,906억원, 기금은 7,872억원이다.

이번 추경 특징은 지난 5월 정부추경 연계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대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편성에 중점을 뒀다.

이들 사업은 지방비 매칭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 66개 사업에 684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고용산업위기지역 대책으로 19개 사업 278억원이 지원된다.

세부적으로는,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 40억원,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3억원,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 13억원,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2억원, 전기자동차차산업육성 지원 34억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68억원, 군산 예술콘텐츠 구축 20억원,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 구축 35억원 등이 반영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각 시군에 3개 분야 37개 사업으로 131억원이 지원된다.

분야별로는 청년유입 취창업 정착을 위한 6개 사업에 33억원,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 5개 사업에 42억원, 청년의 적성에 맞는 일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민간취업 연계형 사업 26개에 56억원이 지원된다.

이외에, 정부추경 연계사업 중 전북도를 거치지 않고 사업 주체에 직접 지원되는 국비는 14개사업 516억원 규모라고 도 관계자는 전했다.

도는 전북금융 부지매입비 등에 타당성조사비 2억2,000만원을 반영했다.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인력양성, 금융, 교육, 창업 및 보육, 홍보,판매 등 집중공간 조성을 위한 군산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지난 6월 29일에 중앙

투자심사가 완료되어 부지매입비 20억원을 반영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은 내년부터 설계에 들어가 2023년까지 450억원(국비 225, 지방비 225)의 조성비가 투자된다.

소방 현장 대응 능력강화를 위한 인력 78명 증원 등에 49억원, 완주소방서 12월 개서준비에 19억원 등 소방 분야에 180억원이 증액됐다.

이밖에도 도정 핵심정책인 삼락농정에 71억원, 토탈관공에 3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추경 예산은 7월 16일 제35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정위 심사를 거쳐 7월 30일 최종 의결한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시급 사업 위주로 반영하고, 고용산업위기지역 극복을 위한 사업과 본예산 편성이후 중앙보조사업 변동 등 필수 세출소요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선서합니다”...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발대식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무주에서 열리는 제12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지난 7일 무주군 무풍면 일성콘도에서 열린 가운데 자원봉사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비보이 문화학교’, 전주 청소년 문화 중심

시, 개소식·오픈파티 열어... 비보이 공연에 최적화

대표 크루 ‘라스트포원’이 직접 방문 공연·체험교육 전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주시가 비보이 전용 연습공간을 조성하고 비보이 문화학교를 운영하는 등 대한민국 청소년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시도에 나섰다.

전주시와 전주청소년문화의집(관장 정경주)은 지난 7일 전주청소년문화의집 3층에 마련된 비보이 전용 연습 공간에서 전주시 청소년문화의 중심이 될 전주 비보이 문화학교 개소식 및 오픈파티를 가졌다.

(본보 7월 6일자 12면)

비보이 전용 연습공간은 전주시 청소년들이 TV 등 다양한 영상매체와 SNS 등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합천문화마을 배움고소비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시가 총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곳으로, 리모델링 계획 초기 단계부터 라스트포원을 포함한 비보이 전문가와 공연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바닥재와 방음설비, 조명, 음향장비 등 모두 b-boy 공연에 최적화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청소년들이 비보잉과 디제잉 등 합천문화마을 배움고소비할 수 있는 문화학교가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승수 전주시장의 축하로 문을 연 이날 개소식에서는 전주시 홍보대사로 활동중인 ‘라스트포원’이 기획한 오픈 파티 ‘2018 3:3 올스타일 믹시드 배틀’과 아티스트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비보이 문화학교에서는 전주시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비보이 크루인 ‘라스트포원’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과 체험교육을 접목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하게 된다. 또, 페이스북과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9월에는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들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에 몰려와 최강자 자리를 놓고 겨루는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b-boy 축제인 ‘제12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도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시와 전주시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국내 최초의 비보이 전문 대회인 전주비보이그랑프리를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청소년 문화의 이룩아왔다.

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 문화, 세계적인 영화제로 거듭난 전주국제영화제, 최첨단 드론축구와 드론예술공연 등 다양한 문화 선드해온 전주시 이번 비보이 전용 연습공간 조성과 비보이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비보이와 디제잉 등 청소년 문화도 활성화시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아이들과 청소년의 미래는 곧 우리의 미래이며, 전주 어디에서나 ‘야호’를 외치며 마음껏 뛰노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소통하고 즐기는 비보이 문화는 물론, 아이들과 청년·장년, 어르신 등 전주시민 모두가 문화특별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예술 활동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 미세먼지 개선... 도, 하반기부터 원인분석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전북 미세먼지(PM10, PM2.5)의 연도별 농도 변화를 보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전북의 미세먼지 개선 현황을 보면 2017년 상반기와 2018년 상반기 대비 PM10 농도는 58 → 53 $\mu\text{g}/\text{m}^3$ 로 8.6%가 낮아지고, PM2.5 농도는 35 → 29 $\mu\text{g}/\text{m}^3$ 로 17.1%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도별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민들에게 맑고 푸른 하

늘을 찾아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세분화된 원인 분석에 나선다.

먼저, 시군별 맞춤형 원인 분석을 위해 농도가 높은 지역부터 미세먼지를 채취하여 이온성분, 중금속, 탄소성분 등 화학성분과 배출량 분석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저감 대책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7월 하반기부터 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이 주의보 발령(2시간) 90 → 75 $\mu\text{g}/\text{m}^3$, 경보(2시간) 180 → 150 $\mu\text{g}/\text{m}^3$ 강화된 기준으로 발령된다.

주의보 발령기준 강화로 도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는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아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를 알 수 없었던 무주, 임실군에 대기오염측정소가 설치, 전주 송천동과 정읍 신태인에도 대기오염측정소가 추가로 설치돼 정읍시 신태인 측정소는 실시간 자료가 송출되고 있으며, 나머지 측정소도 시험가동이 끝나는대로 자료가 송출될 예정이다.

현재 설치가 진행중인 장수, 순창, 고창 심원면에 측정소 설치가 완료되면 전북도 대기오염 측정소는 전년도 8개 시·군 15개에서 14개 시·군 24개로 확대 운영되어 도내 모든 시·군의 지역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김진성 기자

무주 2018 남대천 물축제

불중음부쥬! 불만남물축제!

2018. 07. 27(금) - 07. 29(일)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남대천 일원

주최·주관 무주읍·무주읍발전협의회

축제일정	요일별		행사명	장소
	일시	시간		
7월 27일 금요일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수중축구장	
		16:00		무주군 동아리공연
	18:40	래시가드 패션쇼	메인무대	
		19:00		EDM 파티
7월 28일 토요일	20:00	영화상영	메인무대	
	11:00	반디어린이 수중축구 대회		
	16:00	전국퍼포먼스댄스대회		
	18:00	식전공연		
	19:00	개막식		
7월 29일 일요일	20:00	축하공연 [홍진영]	메인무대	
	20:40	불꽃놀이		
	20:45	EDM 파티		
	16:00	전국배틀댄스대회		
20:00	영화상영	메인무대		